

석가탑 유물 이관 '사실상 불가'

불교중앙박물관 전시 후 국립에서 보존처리기로

관리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 온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내 발견유물(국보 제126)'이 부처님 오신 날 특별전 기간에만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대여·전시된다. 전시 후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이관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안희준)는 5월 2일 국보지정분과·동산문화재분과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유물의 소유주가 불국사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전시를 위해 일부 유물을 이관하는 데는 동의하되 전시 후 문화재를 다시 이관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처리한다"고 결의했다. 보존처리의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즉각적인 이관 불가 등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평을 5월 3일 발표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해당 유물의 소유자가 불국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 소유권자로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유물에 대해 소유자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지만 지금 당장 조계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는 고집하지 않는다"고 말해 "무조건적인 반환"과 "반환 거부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던 종단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내비쳤다.

조계종은 "개관특별전에 가능한 모든 유물을 전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 아래 5월 14-17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유물·일정 등을 협의

할 계획이다. 석가탑 발견유물은 5월 18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24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 후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된 뒤 보존처리 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주도하에 종합학술조사보고서가 간행되며, 이때는 문화재위원(김리나 박상국 이오희 신승훈)과 관련전문가(안병찬·박지선 교수)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참여한다.

조계종은 3월 개관한 불교중앙박물관의 개관특별전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석가탑 출토유물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국립중앙박물관이 갑작스레 '반환 불가'를 통보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소유권'이 우선이나 '법적 권한'이 우선이나를 두고 논란을 빚다 결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관리주체를 결정하게 됐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건축불사 관리법 제정 필요"

교단자정센터토론회서 김형남 변호사 주장

"건축불사의 부조리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불사 추진을 선별할 수 있는 건축불사관리법 제정이 마련돼야 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숙)가 5월 2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관에서 연 '가칭 건축불사관리법 제정 검토 토론회'에서 불사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아울러 불사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남 변호사는 "국고보조금이 사람의 경성이나 스님들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건축불사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불사심의위원회'와 '불사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일정 규모 이상 불사에 대한 사전심의와 불사 진행 후의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로 나선 용화사 주지 덕문 스님(중앙종회의원)은 "교부금 또는 문화재보수비 등 국고보조금을 타는 것이 주지 능력으로 인식되는 승가의 인식전환이 법 제정보다도 우선돼야 한다. 관련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종단에 법무팀을 구성한 것처럼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재가자의 참여구조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도 "법률제정 과정에서 대중의 호응이 있어야 입법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제정된 법이어서 실제 운용에서도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조계종 총무원 문화팀장은 "사람의 국고보조금 관리능력을 심의기준으로 삼을 경우 현재 사찰 행정업무 능력을 감안하면 시급한 불사는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하므로 사회법과의 관계도 고려해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일 기자

"중국산 양초 조심"

인체·단청에 악영향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양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질 낮은 중국산 양초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어 불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한국양초공업연합회에 따르면 6개 양초회사가 설립한 B양초 회사는 2006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3억 원 상당의 중국산 양초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했다. 이 업체는 수입박스 외 원산지표를 제거하고 각자 소유한 양초제조 공장 명의로 판매하다 4월 27일 서울세관에 적발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수사 중이다.

중국산 양초에는 표백제가 과다 투입돼 양초에서 발생하는 그을음이 인체에 유해할 뿐 아니라 단청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진 한국양초공업연합회 감사는 "값싼 중국산 양초 때문에 국내 양초 제조업 수입 개 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향후 인증마크 도입 등을 통해 중국산과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한복입고 팽이치고... "원더풀 코리아!"

스위스 법제사 한국문화축제에 현지인 '감동'

지난 4월 스위스 로잔근처 라사라성과 가르주센터에서 두 차례 열린 한국문화축제에 가만 눈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 그들은 한국인 입양아들이었다. 한국말도 할 줄 모르지만 우연히 한국문화행사가 있다는 기사를 보고 온 것이었다.

행사를 보러 와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문 사람들도 입양아들이었다. 어떤 입양아는 행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머물면서 한국 전통문화를 몸으로 익히려고 노력했다. 행사를 주관한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

우 스님은 "앞으로 한국인 입양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스위스 유일의 한국절 법제사가 개최한 한국문화축제에는 매주 토요일 2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복을 입어보고 한국 전통놀이인 투호, 팽이치기, 공기놀이 등을 체험했다. 신은숙 인강서예문화연구소 원장이 시연하는 서예문화와 금산 양계승 선생이 직접 만드는 도자기를 보고 한국의 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남동우 기자



스위스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에서 태권도를 선보이고 있다.

교장·장학사 교육경력자 '불심 투합'

6월 1일 '푸루나' 창립

교장과 장학사 등 교육 경력자에 근무하고 있는 불자들의 신명모임 '푸루나'가 6월 1일 오후 6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한다.

교육경력자불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진정순, 前 당곡초등학교교장)는 4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전·현직 불자 교장 및 교감, 장학관 및 장학사 등 5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푸루나는 앞으로 종단의

청소년 포교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청소년 포교조직 및 교사조직 결성, 불교도서 및 자료집 개발 보급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대구 성원어린이집 개원

대구지역 불교계에 처음으로 직장 보육시설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개원했다. 4월 28일 대구 달성군 논공공단 내에 열린 '성원어린이집' 개원식에는 양산 통도사 주지직무대원 산용 스님을 비롯해 지역 스님 20여명이 참석했다. 순법선 대구지사장



순천 송광사 본말사 스님들이 5월 1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효봉 대종사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금강산 신계사에서 효봉 스님 기려

송광사 본말사 신도 250명 추모제 봉행

조계종 통합종단 총대종정을 지낸 효봉 대종사 추모제가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5월 1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봉행됐다. 신계사는 효봉 대종사 출가지이며 수행처다.

순천 송광사 본말사 스님 및 신도 250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추모제는 효봉 대종사 영정을 모시고 행상 소개, 신계사 도감 제정 스님 인사말, 독경 및 예불,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효봉 대종사 수행처이며 오도지인 법기암터를 참배한 송광사 스님 및

신도들은 이곳에서 출가한 해혜 스님(경주 흥륜사 회주)의 설명을 들은 뒤 잠시 참선을 하기도 했다.

영조 스님은 "효봉 대종사님께서 수행장진하시고 깨달음을 얻은 법기암터가 복원될 수 있도록 효봉문도회 후학들과 불자들이 원력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송광사는 법기암터와 효봉 대종사 정진터라는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 현대아산 및 조선불교도연맹과 협의 중이다. 남동우 기자

봉은사, 사랑·나눔으로 봉축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주제로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린다.

봉은사는 5월 10일부터 영등포교도사와 강남경찰서를 비롯해 군부대 10여 군데의 포교현장을 위문한다. 18일에는 강북장애인복지관 장애우와 지역 독거어르신을 초청해 전통등 전시회를 관람한 후 야쿠아리움·민속박물관을 견학하는 '사랑과 나눔의 한마당'을 개최한다. 5월 11-22일에

는 서울의료원 입원병동을 방문한 후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22일에는 강남구재활용선별장과 승가원 장애 아동시설을 방문한다. 17일 봉은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동대부여중 학생 50여 명을 초청해 장학금을 수여한다.

한편 5월 21일 개막하는 세계물류유통컨벤션에 참가하는 기업 경영자(CEO) 100여 명이 봉은사 템플라이프에 참석할 예정이다. (02)511-6070 여수령 기자

부산 소림사 신도 총무원 방문

"정일 스님 창건주 권한 승계"

부산 소림사 신도 200여명이 혜전 스님을 주지로 임명해 달라며 5월 1일 조계종 총무원을 향한 방문했다.

신도회 대표들은 조계종 총무부장 현문 스님과의 면담에서 소림사의 창건주 권한승계자는 회주 정일 스님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발급

할 것 스정일 스님을 주지로 품신 시 즉시 임명 등을 총무원장 스님에게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종인 스님은 5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 스님 직계상좌인 내가 창건주 권한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11월 종인 스님은 창건주 권한 승계를 받았지만 2005년 8월 법규위원회에서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남동우 기자

나눔과 축제의 도량 조계사

5월 직轄하는 한낮의 더위도 비껴가는 조계사 대웅전에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 깜깜한 밤 세상을 수놓는 형형색색의 연등을 보며 소원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3천배맹쟁진 5월 12일(토) 저녁 7시부터 ~ 새벽 4시(새벽예불)회향 조계사 대웅전	장애인 수계대법회 5월 19일(토) 오후 12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연등축제 5월 20일(일) 불교문화마당 오전 10시 ~ 오후 5시 조계사 앞길 연등행렬 오후 7시 ~ 밤 10시 동대문아구장 ~ 조계사	불기2551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5월 24일(목) 오전 10시 조계사 특설무대
--	--	---	--

조계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주간에 맞아 '이웃을 위한 등'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수익금 전액은 병마와 힘겨게 싸우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집니다.

동참비 : 1만원 (문의 : 732-2187 신도회 사무처)

대인불교조계종 조계사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83-4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